

자신감은 TOP!...LG의 재발견

꼴찌후보 LG 상승세 비결은?

작년 술하게 날려버린 무사3루 찬스
이젠 SK전 우천침소가 아쉬운 눈빛
삼성·롯데·KIA와 붙어서 '4승 3패'
“누구든 이길 수 있다” 자신감 Up!

포수 조인성(SK), 외야수 이택근(넥센), 투수 송신영(한화) 등 주축 역할을 했던 프레이전트(FA)들은 줄줄이 빠져나갔다. 거기에 경기조작 여파로 지난해 에이스 역할을 했던 박현준과 또 다른 영건 김성현도 이탈했다. 모두들 ‘꼴찌 후보’라고 했다. 그러나 페넌트레이스 초반 5할을 훌쩍 넘어서는 승률로 예상 밖 선전을 펼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야구는 멘탈스포츠’란 측면에서 보면 LG의 초반 상승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자신감 회복이 급선무

1월 5일 잠실구장에서 신년하례식이 끝난 뒤 김기태 감독은 “선수들이 자신감을 찾는 게 가장 급하다”고 지적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그는 타석에서의 모습



생동기가 달라졌다. 경기 때마다 위축했던 모습은 과거의 일. 이제는 ‘어느 팀과 붙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김기태 감독이 있다. 스포츠동아DB

을 예로 들었다. “못 치면 어떻게 하지. 다음 타석에서 교체되는 게 아닐까”하는 불안감을 갖고 타석에 서는 것과 ‘내가 이번엔 반드시 투수를 이긴다’는 자신감을 갖고 치는 것은 천지차이”라며 “LG가 지

난해 술한 무사 3루 찬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은 찬스를 즐기기보다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스프링캠프를 통해 선수들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힘을 쏟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자신감이 붙었다!

볼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김기태 감독은 24일 잠실 넥센전에 앞서 최근 상승세의 원동력을 자신감에서 찾았다. “지난 주말 SK전이 비로 취소된 뒤 선수들이 아쉬워하는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고 말했다. 예전 같으면 팀 짜임새가 좋은 SK전이 비로 취소되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선수들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비로 날아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LG는 삼성~롯데~KIA, 4강 후보로 꼽히던 세 팀과의 시즌 초반 ‘지옥의 레이스’에서 4승3패로 선전한 뒤 박찬호~류현진으로 이어진 한화의 막강 선발진도 연이어 꺾었다.

김 감독은 “게임에 진 날도 선수들의 표정에 패배의식보다는 아쉽게 졌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팀이 차츰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했다. “시즌을 치르다보면 언젠가 고비도 오겠지만,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힘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잠실 | 김도현 기자 dohon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황재균

박석민

박석민에게 두번 당한 ‘방망이 헌터’ 황재균

롯데 황재균은 24일 대구 삼성전 직전 비에 쌓여 있는 새 방망이를 꺼내들었다. 이 걸 보더니 롯데 양승호 감독은 “연필만 좋으면 뭐해? 글씨를 잘 써야지”라고 웃으며 ‘면박’을 줬다. 전날까지 타율 0.190에 0홈런 4타점으로 부진을 면치 못한 황재균의 타격감을 두고 놀린 것이다.

롯데의 팀 타율이 무려 0.307에 달했기 때문에 황재균의 부진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만히 듣고 있을 황재균이 아니었다. 씩 웃으며 “감독님, 이 방망이가 KIA 안치훈에게서 빼앗아온 겁니다”라고 응수했다. 지난 주말 광주 원정 때 KIA에서 ‘잘 나가고’ 있는 안치훈의 기를 흠치기 위해 방망이를 얻어온 것이다.

황재균은 나이가 24일 경기 전엔 삼성에서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던 박석민의 배트까지 노렸다. 그러나 박석민은 필사적으로 방망이를 사수했다. 결국 안치훈의 방망이를 들고 3회 첫 타석에 나서 삼성 선발 윤성환을 상대로 3루 땅볼을 치는 데 그쳤다. 타구가 먹혀서 내야안타가 될 수 있었지만 3루수 박석민의 순발력 있는 수비 탓에 간발의 차로 아쉽게 됐다. 박석민이 끝절로 미울 수밖에 없는 황재균이다.

대구 | 김병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키 컸으면? 안 커도 이기면 좋아.’ 24일 대구 삼성전에서 ‘끝판대장’ 오승환을 격파한 롯데 선수단이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장신인 외국인 투수 뉴먼(195cm)이 팔을 치켜 올리자, 양승호 감독은 다소 버거워하는 모습. 사진=스포츠동아DB

복귀 준비하던 송지만 이번엔 발목골절

넥센 송지만(사진)이 24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퓨처스리그 경기 중 주루를 하다 왼쪽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완치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송지만은 8일 잠실 두산전에서 왼 발목에 투구를 맞은 뒤 그동안 2군에서 재활을 진행해왔다.



넥센 김병현(사진)이 25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선발 등판해 구위를 점검한다. 예정된 투구수는 75~80개. 김시진 감독은 24일 “만약 비로 취소되면 26일 등판한 뒤 1군에 다시 합류한다”고 밝혔다. 김병현은 2군 경기에서 투구수를 늘린 뒤 1군에 등록할 예정이다.



9구단 정착·10구단 창단 묘안은?

오늘 리베라호텔서 야구발전토론회

사단법인 한국야구발전연구원(원장 김종)은 25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 15층 로지움에서 ‘프로야구 현안 긴급 점검’을 주제로 제5회 야구발전토론회를 개최한다. 개회사와 프로야구 현안을 소개하는 개회식 이후 스포츠경제연구소(SEI) 정의운 소장이 ‘한국프로야구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절한

적정 구단수는?’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한다. 이어 2번째 발제자로는 ‘창원 NC 다이노스(9구단) 2013시즌 1군 경기 참여 적정성?’을 주제로 경향신문 이용근 기자가 나선다. 3번째 주제 ‘제10구단 창단 가능성 로드맵’은 IB미디어넷 송재우 이사가 발제할 예정이다.

이후 열리는 종합토론의 좌장은 김종 한국야구발전연구원장이 맡는다. 이번 토론회는 스포츠도토에서 후원한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앤서니기자의 추신수 STORY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Choo!

추신수의 클리블랜드는 최근 캔자스시티와 시애틀, 오클랜드 원정 9연전에서 7승2패를 거뒀다. 조금 늦게 기지개를 켜지만 최근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에서 공동선두 디트로이트,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한 게임 뒤진 3위를 달리고 있다.

클리블랜드는 여전히 아직 보여주지 못한 힘이 있다. 시즌 타율 0.250(56타수 14안타)을 기록하고 있는 추신수도 그 중 하나다. 추신수는 14경기에서 9타점에 2루타 5개를 쳤다. 볼넷은 9개였고 삼진은 14개다. 클리블랜드 중심타자 역할을 해야하는 추신수에게 썩 어울리는 성적은 아니다.

여전히 슬로 스타터의 모습이지만 지난해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그래도 출발이 괜찮은 편이다. 추신수는 지난해 14개 임을 뛰었을 때 53타수 12안타, 타율 0.226에 그쳤다. 2루타는 1개였고, 2홀런에 6타점 5볼넷 14삼진을 기록했다.

14경기가 지났지만 추신수는 여전히 홈런이 없다. 그러나 추신수뿐만이 아니다.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 타자인 앨버트 푸홀스(LA 에인절스)도 16경기를 뛰면서 홈런을 뽑지 못하고 있다.

추신수는 특히 야수 정면으로 향해 안타가 되지 않은, 질 좋은 타구를 계속 날리고 있다. 좋은 모습이다. 다만 시즌 초반 조금 운이 없을 뿐이다. 23일(한국시간) 오클랜드와 경기에서도 왼쪽으로 밀려 쳐 좋은 타구를 날렸지만 좌익수 글러브로 바로 빨려들어가 안타가 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충분히 자기 페이스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를 즐기면서 부활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는 추신수의 마음가짐도 좋다. 훌륭한 시즌을 기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또 지난 9경기에서 9타점을 올리는 등 찬스에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09년과 2010년의 추신수는 아니다. 그의 능력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는 3할 이상의 타율을 올릴 수 있는 타자다. 지금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면 어느 시점에서 홈런이 터지기 시작하고 안타도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클리블랜드가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다.

물론 추신수는 최근 투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밀어치는 타격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 투수들이 지나치게 위험한 몸속 승부를 거는 장면도 자주 보인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을 조만간 모조리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MLB.com기자

ML 명포수 이반 로드리게스 은퇴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수 중 한명으로 꼽히는 ‘퍼지’ 이반 로드리게스(I-로드)가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다. (사진) ‘땅딸보(pudge)’라는 별명으로 친숙한 I-로드는 24일(한국시간) 친정팀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구장 레인저스파크에서 열린 은퇴식에서 “오늘은 나에게 매우 힘든 날이다. 21년간 위대한 여정이었고, 아름



다웠다”며 작별인사를 했다. 뉴욕 양키스-텍사스전에 앞서 시구를 위해 마운드에 선 그는 갑자기 마운드에서 내려와 포수로 앉아준 마이클 영을 2루로 가게 했다. 그러더니 명포수 출신답게 자신의 자리인 안방에 앉아 2루에 송구하는 것으로 시구를 마무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I-로드는 1991년 빅리그에 데뷔해 통산타율 0.296, 311홈런, 1332타점을 기록했다. 14차례 올스타전에 출장했고, 13차례 골드글러브와 1차례 아메리칸리그 MVP를 수상했다. 이석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이대호 2경기째 무안타...타율 0.211

오릭스 이대호(30)가 2경기 내리 침묵했다. 시즌 타율은 다시 0.211까지 떨어졌다.

이대호는 24일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 크리넥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라쿠텐과의 원정경기에서 4번 1루수로 선발 출장했으나 상대 좌완 선발 시오미 다카히로에게 두 타석 연속 삼진을 당하는 등 4타수 무안타로 고개를 숙였다. 1회 2사 1루서 몸쪽 빠른 직구에 헛스윙 삼진, 4회 1사 후 2번째 타석에선 높은 직구에 다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0-3으로 뒤진 6회 2사 후에는 낮은 포크볼을 때렸지만 3루 땅볼로 아웃됐다. 0-4로 뒤진 9회 선두타자로 나서서는 5경기에서 4세이브를 기록 중이던 라쿠텐 마무리 대릴 래스너의 바깥쪽 직구를 노렸지만 2루 땅볼에 그쳤다. 오릭스는 시오미에게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허용하는 등 무기력하게 끌려가며 0-4로 완패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엔트리노트

(24일)

●등록=정형식(삼성) 봉준근(LG) 김경언 이학준(이상 한화)

(23일)

●등록=김상훈 송영민(이상 KIA)

●말소=우동균(삼성) 고우석 최훈력(이상 KIA) 김기표(LG) 임익준 최진형(이상 한화)